

**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관련 언론인 연수 실시**

위원회는 4월 22일 직권조정결정 및 시정권고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언론인 대상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. 이번 연수는 최근 정부광고 핵심지표에 포함된 것을 비롯, 방송사 평가,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여러 언론정책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자 마련됐습니다.

**2021년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**

위원회는 4월 30일 <2021년 시정권고 사례집>을 발간했습니다. 사례집에는 지난해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심의한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주요 시정권고 사례, 시정권고 결정 전체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> 정보자료실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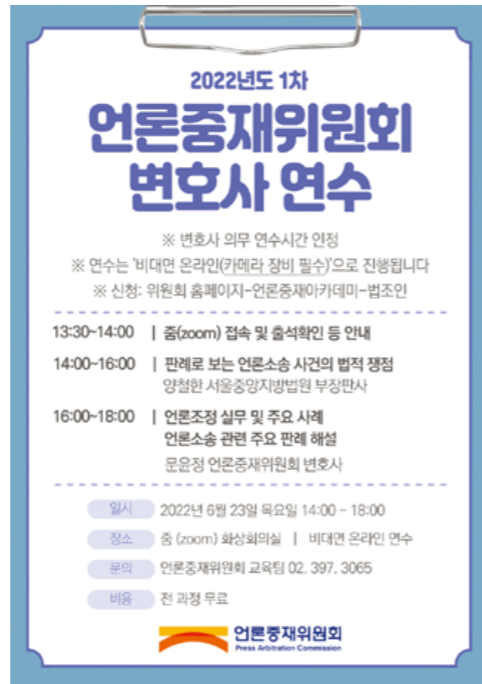


**2022년 제2차 일반인연수 실시**

위원회는 6월 16일(목) 2022년도 2차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번 연수는 '판례로 살펴보는 언론소송 사건의 법적 쟁점', '알기 쉬운 언론피해구제 제도' 주제 강의를 통해 언론소송사건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.

**2022년 제1·2차 변호사연수 개최**

위원회는 6월 23일(목) 제1차 변호사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. 현직 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변호사연수는 '판례로 보는 언론소송 사건의 법적 쟁점', '언론 조정 실무 및 언론관련 판례 해설' 등 언론법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변호사연수 이수완료 시 변호사 의무 연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. 오는 8월 26일에 제2차 변호사연수가 예정되어 있으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
**2022년 제2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**

위원회는 8월 8일(월)부터 12일(금)까지 제2차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이번 연수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언론법제 및 미디어 현안 관련 다양한 전문가 강연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 법학전문대학원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**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발간**

위원회는 지난 한 해 접수·처리한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통계분석과 주요 사례를 담은 <2021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>을 2022년 5월 31일 발간하였습니다. 사례집에는 2021년 위원회가 접수·처리한 4,278건의 조정신청사건을 중재부별, 청구권별, 매체유형별, 침해유형별 등으로 분석한 내용과, 50건의 주요 언론조정사례를 선별해 수록하였습니다.

\* 연간보고서 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(www.pac.or.kr) > 정보자료실 > 정기간행물 > 언론조정중재사례집/시정권고사례집에 게시돼 있습니다.

**주요 통계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**

- **중재부별 접수 현황** : 2021년 접수·처리한 조정사건은 4,278건으로, 서울중재부(총 8개) 2,969건(69.4%), 지역중재부(총 10개) 1,309건(30.6%)입니다. 서울 1개 중재부가 접수·처리한 평균 조정사건은 371건이며, 경기중재부는 총 18개 중재부 가운데 가장 많은 390건의 조정사건을 접수·처리하였습니다.
- **처리기간** : 2021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7.9일(서울 18.7일, 지역 16.1일)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나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철회한 취하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기간은 19.6일(서울 20.2일, 지역은 18.1일)로 다소 늘어났습니다.
- **청구권별 처리결과** : 정정보도청구 1,832건(42.8%), 손해배상청구 1,372건(32.1%), 반론보도청구 870건(20.3%), 추후보도청구 204건(4.8%) 등 전체 4,278건의 피해구제율은 62.7%이며,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 70.6%, 정정보도청구 64.4%, 반론보도청구 63.7%, 손해배상청구 58.4%로 나타났습니다.
- **매체 유형별 접수 현황** : 조정신청 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인터넷신문 2,477건(57.9%), 인터넷뉴스서비스(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) 609건(14.2%), 방송 495건(11.6%), 신문 453건(10.6%)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인터넷 기반 매체(인터넷신문, 인터넷뉴스서비스, 뉴스통신)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3,302건(77.2%)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70%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 중 1,702건(51.5%)이 피해구제가 되었으며, 이때 정정보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 외에도 인터넷에서 원 조정대상 기사를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사례가 426건(25%)이었습니다.
- **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** : 총 4,278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된 사례는 1,549건이며, 이 가운데 1,424건(91.9%)이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·프로그램에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되어 피해구제보도문을 원보도와 동일한 지면, 채널에 게재·방송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별도 지면·프로그램 게재는 113건(7.3%), 언론사 자체 정정·반론보도 지면 또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게재는 10건(0.6%)이었습니다.
- **침해 유형별 처리결과** : 명예훼손 관련 조정사건이 4,123건(96.4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초상권·음성권·성명권·사생활 등 침해 98건(2.3%), 재산상손해 및 기타 57건(1.3%)이었습니다. 명예훼손 관련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62.0%이며, 초상권 침해, 성명권 침해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각 89.4%, 71.4%를 보였습니다. 음성권·사생활 침해 관련 조정사건의 경우 사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100% 피해구제가 이뤄졌습니다.